

〈용궁부연록〉의 작품세계와 의미*

안 창 수**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용궁 구경과 삶에 대한 인식의 전환 |
| II. 화려한 초대와 탁월한 능력의 발휘 | V. 각몽(覺夢)과 부지소종(不知所終)의 의미 |
| III. 운필연의 환희와 애조의 정서 | VI. 맺음말 |

국문초록

〈용궁부연록〉은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 가운데 마지막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이런 점에서 〈용궁부연록〉의 의미를 찾아보는 일은 『금오신화』를 통해 드러내려 했던 김시습의 생각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수렴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 글에서는 작중인물들의 시(詩)에 나타난 애조의 정서에 주목하여 애조의 정서가 갖는 의미를 작품의 서사적 전개과정과 연결해서 찾아보려 했다. 그 결과 〈용궁부연록〉은 지배질서에서 소외되었던 한생이 용궁에서의 체험을 통해 세속적인 가치며 욕망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자연

* 이 논문은 2009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과 벗어나며 살아감으로써 정신적 자유를 확보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세조의 정변 이후 절망과 비애에 사로잡혀 있던 김시습이 자연과 벗어나며 살아감으로써 정신적 자유를 얻으려 했던 심경을 작품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애조의 정서, 서사적 전개, 정신적 자유, 지배질서

I. 머리말

작품에서 시(詩)가 차지하는 비중의 과다함, 그리고 서사적 전개의 단조로움 등으로 해서 <용궁부연록>은 연구자들의 접근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작품이다. 『금오신화』에 수록된 다섯 작품 가운데 한 작품만을 따로 떼어 다룬 독립적인 연구 성과물이 가장 적게 축적되었다는 것은¹⁾ <용궁부연록>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의 통로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용궁부연록>은 긴 시간 동안 김시습이 어린 시절을 회고하여 쓴 자서전적 성격을 지닌 작품으로 이해되어 왔다.²⁾ 그러나 한생이 용궁에서 가회각(嘉會閣)의 상량문을 지은 후에 벌어진 흥겨운 윤필연(潤筆宴)의 시에 나타난 애조(哀調)의 정서에 주목하여 세속의 명리가 부질없음을 드러낸 작품이라는 평가가 나타나며 작품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시각이 열렸다.³⁾

1) 필자가 확인해 본 바로 <용궁부연록>만을 다룬 독립적인 논문은 경일남, 『용궁부연록의 우의성 재고』(『고소설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94, 257-280쪽) 한 편을 찾을 수 있었을 뿐이다.

2) 이가원, 『금오신화 해제』, 『금오신화』, 통문관, 1959, 27-28쪽.

정주동, 『매월당김시습연구』, 신아사, 1965, 730-733쪽.

<용궁부연록>은 “그 후 한생은 세상의 명예와 이익에는 생각을 두지 않고 명산에 들어갔는데 그가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 없었다”⁴⁾는 말로 끝나고 있다. 주인공의 부지소종(不知所終)과 죽음이 『금오신화』에 수록된 작품들의 공통된 결말임에도 그것을 “세상의 명예나 이익”과 결부시킨 것은 <용궁부연록>에만 나타나는 것이다. <용궁부연록>의 작품세계가 세상의 명예나 이익과 관련된 내용으로 짜여 있고, 그것을 통해 작품의 의미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속의 명리에 대한 부질없음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도 유익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용궁부연록>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작품의 서사적 전개과정과 연결되어 이해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작품에 나타난 애조의 정서가 작품의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도 또한 서사적 전개과정과 접맥되어 밝혀지지 않았다. <용궁부연록>은 송도(松都)에 사는 한생(韓生)이 용궁에 초대되어 상량문을 짓고 윤필연에 참여했다가 잔치가 끝난 후 용궁을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줄거리로 되어있다. 줄거리에 의거해 보면 <용궁부연록>은 ①한생이 용궁에 초대받아 상량문을 지었다 ②상량문을 지은 후 윤필연에 참여했다 ③잔치가 끝난 후 용궁을 구경했다 ④집으로 돌아왔다는 네 개의 서사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애조의 정서는 ①~④로 완결되어 있는 서사단락 가운데 ②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작품의 의미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락 ②에 나타나는 애조의 정서가 의미하는 것이 단락 ①,③,④와 맺고 있는 서사적 관계의 맥락 위에서 밝혀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분으로 전체

3) 이혜순, 『금오신화』,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24-26쪽.
안창수, 『금오신화의 의미구조와 작품세계』, 『영남어문학』 26집, 영남어문학회, 1994. 12, 122-124쪽.
윤채근, 『소설적 주체, 그 탄생과 전변』, 월인, 1999, 206~220쪽.
4) 其後 生不以名利爲懷 入名山 不知所終(<龍宮赴宴錄>, 『梅月堂外集』 卷一,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간). 앞으로 작품의 인용은 본문을 밝혀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각주를 달지 않는다.

의 의미를 대신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고, 그 결과 작품에 대한 해석에도 오류를 범하게 된다.⁵⁾

뿐만 아니라 서사적 맥락이 밝혀지지 않을 때, 독자들은 <용궁부연록>에서 단락 ③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장애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 단락 ③은 한생이 윤필연이 끝난 뒤 용궁을 구경했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사건전개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단락 ③은 불필요한 부분처럼 보인다. 한생이 용궁의 인물들과 시를 창화하는 단락 ②의 행위와 용궁의 기물을 구경하는 단락 ③의 행위를 연결시켜주는 사건전개의 인과적 필연성이 작품에서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작품의 서사적 전개는 단락 ③을 제외한 단락 ①, ②, ④만으로 완결되어도, 즉 한생이 용궁에서 상량문을 지은 후 윤필연에 참여했다가 잔치가 끝난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부귀와 명예가 허망함을 알고 부지소중했다는 것으로 완결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용궁부연록>에서 한생의 용궁체험은 윤필연에 참여하는 것과 잔치가 끝난 뒤 용궁을 구경하는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락 ③이 단락 ②와 대등한 비중으로 서술되고 있다. 단락 ③은 사족처럼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서사적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단락 ③의 의미를 찾는 것이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윤필연의 시에 나타난 애조의 정서가 갖는 의미 또한 한생이 용궁의 기물을 두루 구경하는 행위와 연결시켜 해석하게 될 때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단락 ②와 단락 ③을 연결시켜주는 사건전개의 인과적 필연성을 찾는 것은 <용궁부연록>의 의미에 접근하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이 과제는 윤필연의 시에 나타난

5) 이런 점에서 “<용궁부연록>이 세속의 명리가 부질없음을 드러낸 작품”이라는 기왕의 견해도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애조의 정서로부터 도출된 의미,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명리가 부질없음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의미를 작품의 서사적 전개과정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Ⅱ. 화려한 초대와 탁월한 능력의 발휘

<용궁부연록>은 어느 날 두 명의 관원이 공중으로부터 내려와 한생(韓生)이라는 사람에게 송도(松都)의 천마산에 있는 박연(朴淵)의 용왕이 모셔오라고 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한생(韓生)은 “젊어서부터 글을 잘 지어서 이름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문사로서 이름을 얻고 있던”⁶⁾ 인물이었다. 작품에 소개된 한생에 대한 정보는 짧고도 간략하다. 그러나 이 대목은 앞으로 펼쳐질 <용궁부연록>의 사건 전개 과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글을 잘 지어 이름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문사로 이름을 얻고 있었다”는 대목은 ①한생이 글을 잘 지었다, ②한생의 이름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있었다, ③그러나 한생은 문사로서 평판을 얻고 있을 뿐이었다는 세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①과 ②에 의하면 한생은 마땅히 조정에서 자신을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했다. 그러나 한생은 이름만 조정에까지 알려져 있었을 뿐 관리로 등용되지 못하고 조용히 향리에 묻혀 선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문사로서 평판을 얻고 있었다는 ③의 정보가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능력 있는 선비였음에도 향리에 묻혀 있었다는 점에서 ①과 ②는 ③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거기에서 생기는 길항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긴장감은 실력이 조정에까지 알려진 선비라면 마땅히 관리로 임명되어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당위와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현실 사이의

6) 少而能文 著於朝廷 以文士稱之(<龍宮赴宴錄>, 앞의 책).

괴리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에서 당위와 현실 사이의 괴리나 부조화는 표면화되지 않는다. “문사로 이름을 얻고 있었다”는 말로 농치지며 부조화로 인한 한생의 소외나 그로 인한 불만 등은 존재하지 않는 듯이 가려져 있다. 그럼에도 ①과 ②의 결합이 ③으로 종결되어 있는 데에서, 당위와 현실 사이의 괴리와 부조화가 한생에게 부과된 삶의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생은 당시의 지배질서에서 소외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⁷⁾ 당위와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파생되는 삶의 문제가 이 작품의 주된 화두로 다루어지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위와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한 한생의 불만은 그가 용왕의 초청을 받는 대목에서 드러난다.

어느 날 한생은 거처하는 방에서 날이 저물도록 편히 앉아 쉬고 있었더니, 홀연히 청삼(靑衫)을 입고 복두(幘頭)를 쓴 관원 두 사람이 공중으로부터 내려와 뜰에 엎드리며 말했다.

“박연못의 용왕께서 모셔오라 하십니다.”

서생은 깜짝 놀라 낮빛을 바꾸며 말했다.

“신과 인간 사이에는 길이 막혀 있으니 어찌 서로 통할 수 있겠소. 또한 용궁은 물길이 멀고 파도가 사나우니 어찌 갈 수 있겠소?”

두 사람이 말했다.

“문 밖에 준마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몸을 굽혀 서생의 소매를 이끌고 문 밖으로 나섰다.⁸⁾

용왕의 초청을 받은 한생의 반응은 깜짝 놀라서 낮빛을 바꾸어 정색을 하고, 신과 인간 그리고 용궁과 현실세계 사이의 단절을 들어 용왕의

7)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생을 소외된 인물로 볼 수 없다는 일련의 논의들은 수긍하기 어렵다.

8) 嘗於所居室 日晚宴座 忽有靑衫幘頭郎官二人 從空而下 俯伏於庭曰 瓢淵神龍奉邀 生愕然變色曰 神人路隔 安能相及 且水府汗漫 波浪相噬 安可利往 二人曰 有駿足在門 願勿辭也 遂鞠躬挽袂出門(〈龍宮赴宴錄〉, 앞의 책).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었다. 깜짝 놀랐던 것은 용왕의 초청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낮빛을 바꾸어 정색을 하고 말한 것은 용왕의 초청을 거절한 것이 형식적 예의를 갖추기 위해 의례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본심이었음을 알리려 한 것이다. 용왕은 지배질서의 정점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다. 그러므로 용왕의 초청을 거절한 것은 한생이 지배질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생이 지배질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이어지는 행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생을 모시러 왔던 두 사람은 이계(異界)와의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한생에 대해 사양하지 말라고 한 뒤 한생의 소매를 이끌고 밖으로 나선다. 이 부분에서 소통의 불가를 말하는 한생의 의견은 무시되고 두 사람의 견해가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생의 용궁행이 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생이 용왕의 초청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까닭은 그가 지배질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 밖을 나서자 거기에는 온갖 위엄과 격식을 갖춘 수행원들이 한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과연 총마(驄馬) 한 필이 있었는데 금안장 옥굴레에 누린 비단으로 배띠를 두르고 있었으며 날개가 돋아 있었다. 수종자들은 모두 붉은 수건으로 머리를 두르고 비단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십여 인이나 되었다.

그들이 서생을 부축하여 말에 태우니 일산을 든 사람이 앞에서 인도하고 기악(伎樂)이 뒤를 따랐다. 그리고 두 사람도 홀(笏)을 들고 뒤를 따랐다.⁹⁾

9) 果有驄馬 金鞍玉勒 蓋黃羅帕 而有翼者也 從者皆紅巾抹額而錦袴者 十餘人 扶生

과거에 장원급제한 사람의 화려한 유가행렬(遊街行列)을 연상시키는 장면이다. 지배질서에서 소외되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생이 이제 지배질서의 중심으로 초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용궁에 도착해서 받은 환대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용궁에 도착하자 용왕은 직접 뜰 아래로 내려와 한생을 맞이하고는 그를 이끌고 궁전으로 올라가 의자에 앉기를 청한다. 용왕과 대등한 자리를 권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용왕은 일찍부터 한생의 명성이 삼한(三韓)에 나타나고 재주가 백가(百家)에 으뜸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흠모해 왔다고 하며,¹⁰⁾ 한생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인물임을 인정해 주고 있다. 나아가서는 임금으로 추정되는 조강(祖江)과 낙하(洛河) 그리고 벽란(碧瀾)의 신(神)을 초청하여 자리를 함께 할 때에도 한생이 윗 자리에 앉도록 배려한다. 신하가 아니라 스승의 예로 대접하며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위와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한 불만은 지배질서에서 소외된 인물에게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용왕은 성군(聖君)이 스스로 몸을 낮추어 초야에 묻힌 인재를 직접 불러서 등용하는 방법에 의해 한생의 소외와 그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 있다. 임금이 초야에 묻힌 선비를 직접 초빙하는 것은 국사(國師)로 모실 만한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임금의 덕(德)을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고, 실력이 있음에도 쓰이지 않았던 인재들의 소외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임금의 체(體)는 천지와 같아 크게 포용하여 소외된 자가 없고, 해와 달과도 같아 정명(貞明)하여 넓게 비치고, 산악(山岳)과 같이 두텁고 무거워 옮기기 어렵고, 하해(河海)와 같아 자운(滋潤)이 깊고 넓어 다함이 없다. (그러므로) 못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하늘과 땅의 신(神)들이 의부(依附)하

上馬 幢蓋前導 妓樂後隨 二人執笏從之(〈龍宮赴宴錄〉, 앞의 책).
10) 側聞秀才 名著三韓 才冠百家 故特遠招(〈龍宮赴宴錄〉, 앞의 책).

는 바 되어 곤충과 초목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각기 깊은 사랑과 두터운 은혜 속에서 스스로 화육(化育)하는 것이다.¹¹⁾

위의 인용문은 김시습의 글 <인군의(人君義)>에서 인용한 것이다. 천하를 크게 포용하여 소외된 자가 없게 하는 것이 임금의 덕성이야 할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고는 그러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임금의 덕성과 그 결과 나타날 아름답고 운택한 세상의 변화를 차례로 보여주고 있다. 소외된 자를 없게 하는 것이 천하의 갈등을 없애고 임금의 덕을 드러내는 제일 중요한 과제임이 제시되고 있다.

<인군의(人君義)>가 임금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덕성이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용궁부연록>에서 용왕은 소외되었던 자를 등용함으로써 당위적 질서를 실현하고 있는 임금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위가 삶의 현실에서 실현되며 둘 사이의 괴리로 인한 소외와 불만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한생도 용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가회각(嘉會閣)의 상량문을 지어주며, 이제는 지배질서에서 소외된 인물이 아니라 그 중심부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변모하고 있다.

한생은 가회각의 상량문에서 탁월한 문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용궁의 사람들을 감탄하게 한다. 상량문의 내용은 용왕의 덕성을 찬양하고 당위적 질서가 실현된 현실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생각컨대 천지 안에는 용왕님이 가장 신령스럽고 인물 사이에는 배필이 아주 중한데 용왕님께서는 이미 만물을 운택하게 하신 공로가 있으니 어찌 복을 받을 터전이 없으리. 그러므로 <시경> 관저장(關雎章)에서 요조숙녀(窈窕淑女)는 군자호구(君子好逑)라 함도 조화의 시초를 나타낸 것

11) 故人主之體 如天地焉 大包而無外 如日月焉 貞明而普照 如山岳焉 厚重而難遷 如河海焉 滋潤深廣而不竭 衆庶之所瞻仰 神祇之所依附 乃至昆蟲草木 亦各自化育於深仁厚澤之中矣(『梅月堂集』 卷二十, 人君義,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간)

이며, <주역>의 건괘(乾卦)에서 비룡재천(飛龍在天)에 이견대인(利見大人)이라 함도 신령스런 변화의 자취를 나타낸 것이다.¹²⁾

위의 인용문은 상량문의 첫 부분인데 용왕의 신령함과 사람들이 배필을 만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한생은 용왕이 만물을 윤택하게 할 공로가 있다는 것을 칭송하고 있다. 만물을 윤택하게 했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다툼과 갈등, 소외와 불만을 해소하고 태평성대의 질서를 이루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용왕이 신령스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근거를 <주역> 건괘의 문구에서 찾고 있다. 비룡재천(飛龍在天)에 이견대인(利見大人)은 여기에서 성군이 보위에 있으며 초야에 묻혀 있던 큰 인물을 등용하여 쓴다는 의미를 갖는다. 큰 인물은 만물을 윤택하게 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큰 인물을 등용하기 위해서 임금은 먼저 그 능력을 알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하고, 그가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임금으로서의 덕성을 온전히 갖추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인 것이다. 그러므로 신령한 능력이 있을 때 임금은 큰 인물을 만나서 만물을 윤택하게 하는 공로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상량문에는 용왕의 신령함 외에도 사람들이 배필을 만나는 문제의 중요성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시경> 관저장의 요조숙녀(窈窕淑女) 군자호구(君子好逑)는 남녀의 아름다운 만남을 다루는 것이다. 요조숙녀와 군자가 만나서 배필을 이루지 못하면 세상은 정상적인 화생(化生)의 도(道)가 무너져 어지러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이 만나 배필을 이루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조화의 시초가 되는 것이니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12) 竊以堪輿之內 龍神最靈 人物之間 配匹至重 既有潤物之功 可無衍福之基 是以關雎好逑 所以著萬化之始 飛龍利見 亦以象靈變之迹(〈龍宮赴宴錄〉, 앞의 책).

그런데 언뜻 보아 함께 묶어 다룰 만한 공통점이 없어 보임에도 용왕의 신령스러움과 배필의 중요함이 함께 거론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결혼할 용왕의 딸이 거처할 가회각의 상량문이므로 배필의 중요함을 다루었고, 그 부친인 용왕도 함께 다루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고 마는 것은 한생의 의도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용왕이 큰 인물을 만나서 만물을 윤택하게 하는 공로를 이루기 위해서는 큰 인물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여건은 용왕과 인물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될 때 조성되는 것이다. 이럴 때 임금과 신하는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과 같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용왕의 신령스러움이 배필의 중요함과 함께 거론되는 까닭이다. 결국 한생은 용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가회각의 상량문을 지으며 성군이 만물을 윤택하게 하여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용왕은 한생의 뛰어난 문장력을 사랑하여 그를 스승의 예로 극진하게 모시며 그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큰 인물을 쓰는 데 주저함이 없고, 인물을 대접함에 있어서도 요조숙녀를 맞이하는 군자처럼 애정과 신뢰로 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용왕이 만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성군으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키며 당위적 질서를 삶의 현실에서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생은 상량문에서 용왕의 신령스러움과 태평성대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 용궁의 질서를 칭송하고 있다.

풍운의 변화를 돕고 영원히 조화의 공덕을 나타내어 하늘에 있을 때나
못에 있을 때나 하민(下民)의 갈망을 구제하고 잠겨있거나 뛰어오를 때에
도 상제(上帝)의 어진 마음을 도와서 기세가 천지에 떨치고 위엄과 덕망이

원근 지방에 흡족하여 검은 거북과 붉은 잉어는 기뻐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산괴물과 산도깨비도 차례로 와서 축하한다.¹³⁾

당위적 질서가 실현된 세계에서 임금은 하늘과 소통하며 신령스러움을 온 세상에 떨치게 되고, 세계의 구성원들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성군이 구현한 태평성대의 질서에 동참하여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상량문을 지은 후 벌어지는 윤희연은 단순히 한생의 탁월한 문장력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당위적 질서가 실현되어 사람들의 모든 불만과 갈등이 해소된 세상의 태평성대를 축하하기 위한 자축연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Ⅲ. 윤희연의 환희와 애조의 정서

한생이 상량문을 지은 후 벌어진 윤희연은 십여 명의 미인이 춤을 추면서 벽담곡(碧潭曲) 한 곡조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된다.

青山兮蒼蒼 碧潭兮汪汪	청산은 푸르고 푸른 못은 깊고도 넓은데
飛澗兮泱泱 接天上之銀潢	우렁차게 치솟는 계곡물은 하늘의 은하에 닿았네.
若有人兮波中央 振環佩兮琳琅	물결 가운데 계신 님 패옥 소리 낭랑히 울리니
威炎赫兮煌煌 光氣宇兮軒昂	빛나는 위풍이요 걸출하신 기국이네.
擇吉日兮辰良 占鳳鳴之鏘鏘	좋은 시절 좋은 날, 봉황이 우는 시절
有翼兮華堂 有祥兮靈長	나는 듯한 좋은 집에 상서도 신령스

13) 用資風雲之變 永補造化之功 在天在淵 蘇下民之渴望 或潛或躍 祐上帝之仁心 騰翥快於乾坤 威德洽於遐邇 玄龜赤鯉 踊躍而助唱 木鬼山魃 次第而來賀(<龍宮赴宴錄>, 앞의 책).

招文士兮製短章 歌盛化兮舉脩樑	러운데 문사 모셔 글을 짓고 들보 위에 노래 를 거네.
酌桂酒兮飛羽觴 輕燕同兮踏春陽	술 부어 잔 돌리고 제비처럼 가볍게 봄볕을 밟으니
獸口噴兮瑞香 豕腹沸兮瓊漿	향로에는 상서로운 향기요 돌솥에는 미음이 끓고 있네
擊魚鼓兮郎當 吹龍笛兮趨踏	북소리 우렁찬데 피리 불어 행진하니
神儼然而在床 仰至德兮不可忘	높이 앉은 신이이서 지극한 덕 못 잊 겠네.

용궁의 장엄한 풍광과 용왕의 빛나는 위엄과 덕성을 칭송한 다음 평화로운 정경을 담아내며 태평성대의 세상을 노래하고 있다. 평화가 사람들에게 주는 충족감과 질서가 잡힌 세상의 안정감을 가볍고 유려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어 흥겨운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노래로 손색이 없다.

이어지는 노래는 십여 명의 총각들이 부르는 회풍곡(回風曲)이다. 벽담곡이 큰 틀에서 잔치의 전경(全景)을 담아내고 있는데 비해 회풍곡은 잔치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벌어지는 놀이의 흥겨움을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회풍곡은 잔치의 흥겨움을 노래하다 느닷없이 애조의 정서를 표출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賓既醉兮顏酡 製新曲兮酣歌	손님 이미 취했으니 새 곡조를 불러 보세
或相扶兮相拖 或相拍兮相呵	서로 붙들고 서로 이끌며 손뼉 치며 결결 웃네
擊玉壺兮飲無何	술병을 두드리며 남김없이 마시니
清興闌兮哀情多	맑은 흥취 다한 곳에 슬픈 마음 일어 난다

태평성대를 축하하는 놀이판의 흥겨움을 노래하다 느닷없이 나타나는

애조의 정서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억지로 해석하자면 놀이의 흥겨움의 끝에 그것의 허무를 자각했다는 정도인데, 태평성대를 축하하는 잔치에서 그것도 태평성대의 위업을 이룩한 임금 앞에서 놀이의 흥겨움 끝에 허무를 자각했다고 노래하는 것이 문맥상으로는 논리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회풍곡에 이어 용왕이 한생에게 술을 권하면서 부른 수룡음(水龍吟)에도 애조의 정서가 나타나는 것이다.

管絃聲裡傳觴	瑞麟口噴青龍腦	음악소리 울리고 술잔을 돌리니 향로에는 용뇌 향기
橫吹片玉一聲	天上碧雲如掃	옥피리 한 곡조에 하늘 구름 흩어지고
響激波濤	曲翻風月	물결이 칠씩하니 풍월이 번복되네
景閑人老		한가한 경치 속에 인생은 늙어가니
悵光陰似箭		애달픈 세월 화살같이 빠르구나
風流若夢	歡娛又生煩惱	풍류도 꿈결같이 즐거움이 또 번뇌를 낳네

용왕은 먼저 태평성대의 흥겨운 음악소리가 하늘에 닿을 만큼 세상의 질서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용왕은 갑자기 늙어가는 인생과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에서 삶의 덧없음을 깨닫는가 하면 즐거움이 또 다른 번뇌를 만드는 것을 보고 슬픔에 잠겨 있다. 만물을 운택하게 한 위대한 공로를 이룬 뒤 긴장감이 풀리면서 인생의 무상과 허무를 자각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용왕은 신령한 능력으로 태평성대를 이룩한 임금이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지금도 한생을 초청하여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등 여전히 사람들의 불만과 소외를 해소하여 만물을 운택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 임금이 갑자기 긴장이 풀려 허무의 무상감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임금이 허무의 무상감에 빠져있게 되면 삶에 대해 새로운 전망을 세울 수 없게 됨으로

써 윤필연의 잔치도 퇴폐와 향락의 놀이판으로 변질되어야 한다. 그러나 잔치의 풍성함과 흥겨움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윤필연이 향락적 분위기로 흐른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사실이 그렇다면 용왕이 느끼고 있는 애조의 정서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풍류의 즐거움 속에서 싹터오는 번뇌의 실체를 파악해 보는 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풍류의 즐거움은 태평성대의 세상을 이룬 것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다. 태평성대는 만물이 윤택하게 된 세상, 즉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구성원들이 걱정과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다. 그러나 태평성대의 즐거움 가운데에 번뇌가 상존해 있다는 것은 용왕의 신령함과 위대한 업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용왕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용왕이 이루었다고 믿었던 태평성대의 업적도 사실은 허구적인 것이 된다. 용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 때문에 번뇌와 애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용왕의 뒤를 이어 등장하고 있는 곽개사(郭介士)와 현선생(玄先生)은 용왕이 느끼고 있는 번뇌와 애상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곽개사와 현선생은 용왕을 좌우에서 모시고 있던 인물이었다.¹⁴⁾ 이들이 용왕을 측근에서 보필하는 신뢰받는 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곽개사는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저는 바위 틈에 숨은 선비요 모랫구멍에 사는 한가한 사람입니다.
속은 누렁고 짙은 둥글며 굳은 갑옷을 입고 예리한 병기를 가졌습니다. 늘
손발을 잘려서 술에 들어가게 되고, 비록 정수리를 갈더라도 사람들을 이
롭게 했습니다. 멋스러운 맛은 장사(壯士)의 얼굴빛을 기쁘게 했고, 조동
(躁動)하는 모양은 부인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¹⁵⁾

14) 顧謂左右曰 此間伎戲 不類人間 爾等爲嘉賓呈之(<龍宮赴宴錄>, 앞의 책).

15) 僕巖中隱士 沙穴幽人 中黃外圓 被堅執銳 常支解以入鼎 從摩頂而利人 滋味風流 可解壯士之顏 形模郭索 終貽夫人之笑(<龍宮赴宴錄>, 앞의 책).

자신의 거처를 바위틈과 모랫구멍으로 설정한 것은 게(蟹)의 실제 서식지를 드러낸 것임에도 여기에서는 광개사의 검소한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개사는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측근에서 임금을 모시고 있을 정도로 현달한 입장에 있음에도 광개사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보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광개사는 임금을 모시고 있는 신하가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삶의 자세를 실현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광개사는 자신의 실제 삶이 다음과 같았다고 토로하고 있다.

依江海以穴處兮	강해(江海)에 의탁해 구멍 속에 살지라도
吐氣宇而虎爭	기운을 토하면 범과도 다투겠네
身九尺而入貢	신장이 구척이니 진상(進上)하기 넉넉하고
類十種而多名	종류가 열이니 이름도 다양하다
喜神王之嘉會	기쁜 마음으로 신령스런 임금님의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해
羌頓足而橫行	발을 구르며 옆으로 걸어가네
.....	
匪酬恩而泣珠	은혜를 갚기 위해 울어 구슬 낸 것 아니요
非報仇而橫槍	원수를 갚기 위해 창을 뽑은 것도 아니건만
嗟濠梁之巨族	슬프다, 물에 사는 거족(巨族)들은
笑我謂我無腸	나를 비웃어서 무장공자(無腸公子)라 하는구나
然可比於君子	그러나 군자에 비길 이 몸
德充腹而內黃	벉속에 덕이 차 내장이 누렁네

광개사는 자신이 강과 바닷가의 구멍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출신과 처지가 미천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는 호랑이와도 다투 만한 기상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래서 구척(九尺)의 신장이 보여주는 탁월한 능력과 열 종류의 이름이 보여주는 다양한 재주를 바탕으로 기쁘게 임금님의 조정에 참여해 발을 구르며 능력을 발휘했다고 했다. 울

어서 구슬을 토하고 창을 뽑아 들기도 했지만 이것은 자신의 은혜를 갚고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금과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슬프게도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배알도 없는 녀석이라는 욕설과 비웃음뿐이어서 광개사는 결국 세상과 사람들에게 대한 기대를 버리고 자기 자신의 덕을 쌓는 데 몰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충격적인 고백이다. 임금님의 측근에서 신뢰받는 신하로 있으면서 신하로서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삶을 살고자 했음에도 세상은 그의 충심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광개사는 세상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소외된 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신령스런 임금님이 다스리는 태평성대의 조정에서부터 소외와 불만,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공공연하게 나타남으로써 만물을 윤택하게 하여 태평성대를 이룩했다는 것이 사실은 허구임을 드러내고 있다.

광개사의 뒤를 이어 등장한 현선생은 자신을 “살아서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보배가 되고 죽어서는 도리를 예언하는 보물이 되었다”¹⁶⁾ 소개하고 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모두 보배로운 인물로 추앙받으며 가장 고귀하게 살았으니, 불만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선생은 천 년 동안 마음 속에 쌓였던 회포를 풀겠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匪鍊丹而久視	단약(丹藥)을 안 먹어도 오래 살 수 있고
非學道而靈長	도리를 안 배워도 신령함이 넘쳤네
遭聖明於千載	천 년만에 성군(聖君)을 만나서
呈瑞應之昭彰	온갖 상서로움 빛나게 드러내며
我爲水族之長兮	수족(水族)의 어른 되어
助連山與歸藏	주역(周易)의 이치를 연구하고
負文字而有數兮	문자를 등에 지고

16) 生爲嘉世之珍 死作靈道之寶(<龍宮赴宴錄>, 앞의 책).

告吉凶而成策	길흉을 알려주어 계책을 이루게 했네
然而多智有所危困	그러나 지혜가 많다 하나 곤액에 빠진 바 되고
多能有所不及	재능이 많아도 미치지 못할 일 있어
未免剖心而灼背兮	가슴을 가르고 등을 지지는 것 벗어나지 못해
侶魚蝦而屏迹	물고기며 새우와 벗하여 자취를 감추었네
羌伸頸而舉踵兮	목을 빼고 발꿈치를 들어
預高堂之宴席	임금님의 잔치에 참석하니
.....	
或譖笑而撫掌	어떤 이는 껄껄 웃고 어떤 이는 손뼉 치는데
日欲落兮風生	해 저물고 바람 이니
魚龍翔兮波滄泱	고기 뛰고 물결도 센데
時不可兮驟得	좋은 때 자주 얻기 어려우니
心矯厲而慨慷	마음을 고쳐 먹고자 해도 슬픔만 가득하네

현선생은 단약에 의지하지 않아도 오래 살 수 있고 배우지 않아도 신령스러웠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타고 난 지혜를 바탕으로 힘껏 노력하여 세상의 모든 이치에 통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했다. 더욱이 현선생은 천 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다는 성군을 만나서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고 했다. 탁월한 재능을 타고 나서 하늘이 주신 때를 만나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으니 사람들이 도달하고 싶어 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선생은 세상의 이치에 통달해 못 사람들에게 길흉에 대비한 계책을 알려주는 입장에 있었음에도 자신이 곤액에 빠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뛰어난 재능으로도 어찌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히기도 했다고 했다. 그래서 가슴을 가르고 등을 지지는 것과 같은 참혹한 일을 다시 당하지 않으려고, 물고기와 새우 등 보잘 것 없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으며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고 했다. 대단히 현달한 입장에 있으면서도 고난을 면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이며 피곤한 삶을 살아야 했다는 말이다. 또한 임금님의 잔치에서 못 사람들이 함께 기뻐 뛰노는 것

을 보면서 갈등과 분쟁이 없는 태평성대의 세상은 드물게 찾아오는 행운일 뿐이니 세상을 살면서 곤액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지 말자고 생각을 고쳐 먹으며 자신을 위로해 보기도 했지만 가슴에 쌓이는 것은 슬픔뿐이었다고 했다. 세상의 모든 이치에 통달하고 길흉에 대비한 온갖 방책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현선생도 곤액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하며, 자신들이 구현했다고 믿었던 태평성대의 세상이 사실은 허구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용왕과 광개사 그리고 현선생은 모두 가장 이상적인 삶을 실현하며 부귀와 명예를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인물들이었다. 용왕은 만물을 운택하게 하여 태평성대를 이룬 공로로 신령스러운 임금으로 추앙받고 있었고, 광개사와 현선생도 임금님의 측근에서 신뢰받는 신하로서 자신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태평성대의 질서를 이루는 데 기여하며 보배롭고 고귀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용왕은 신령스런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번뇌에 빠져 있고, 광개사는 임금과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비웃음을 받아야 했으며, 현선생은 세상의 이치에 통달해 있었음에도 곤액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없었던 데에서 깊은 회의와 슬픔에 빠져 있었다. 결국 용왕과 그 주변의 인물들은 자신들이 필생의 공력을 쏟아 부어 이룩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태평성대의 세상이 사실은 허구였음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태평성대의 잔치에서 용궁의 인물들이 비애와 애상의 정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광개사와 현선생의 뒤를 이어 강하(江河)의 군장(君長)으로 있는 조강과 낙하 그리고 벽란의 신(神)이 시를 지어 드리는데, 이들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슬픔과 원망스런 일로 근심 속에 날을 보내는가 하면¹⁷⁾ 세상

17) 年年觸石多嗚咽 해마다 파도 속에 슬픈 일 많았는데
此夕歡娛蕩百憂 오늘 저녁 즐거움으로 온갖 시름 풀어졌네(<龍宮赴宴錄>, 祖江神의 시, 앞의 책).

일에 쫓겨 바쁘게 살아야 하는 자신들의 고달픈 신세를 하소연하고 있다.¹⁸⁾ 한 지역을 다스리는 군장으로 있으며 온갖 부귀와 명예를 누리는 정점에 있음에도 이들의 삶이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행복하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다.

세 명의 신은 용왕에게 초대받은 외부의 인물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진술은 용왕과 광개사 그리고 현선생이 느끼는 비애와 애상이 박연못 용궁의 사람들만이 갖는 별난 감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외부의 인물들을 동원해서 박연못 용궁 사람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도 타당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강하(江河) 군장(君長)들의 시에 이어 드디어 한생이 장편시 20운을 지어 윤필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天磨高出漢 巖溜遠飛空	높이 솟은 천마산 공중에 나는 폭포
直下穿林壑 奔流作巨淙	바로 내려 숲을 뚫고 급히 흘러 시내 되네
波心涵月窟 潭底悶龍宮	물 속에 월굴(月窟)이요 못 밑에는 용궁이라
變化留神迹 騰拏建大功	풍운의 변화 신기한 자취로 남고 하늘에 올라 공을 세워
煙愜生細霧 駘蕩起祥風	가는 안개 피어 오르고 상서로운 바람 화창한데
碧落分符重 青丘列爵崇	하늘에서 명령 받아 청구에 배치할 제
乘雲朝紫極 行雨駕青驄	구름타고 조회하고 비를 내려 말 달리네
金闕開佳燕 瑤階奏別鴻	금궐(金闕)에서 잔치 열고 玉階(옥계) 앞에서 음악 아뢰어
流霞浮茗椀 湛露滴荷紅	찾잔에는 운기(雲氣) 뜨고 연잎엔 이슬 젖네
揖讓威儀重 周旋禮度豐	위의(威儀)가 정중하고 예법도 성대하네
衣冠文燦爛 環佩響玲瓏	의관 문채 찬란하고 패옥 소리 영롱한 데
魚鼈來朝賀 江河亦會同	물고기가 조회하고 물신령도 모였구나

18) 流盡光陰人不識 홀러가는 세월 누가 알겠는가
 古今世事太匆忙 예나 지금이나 세상 일은 너무도 바쁘네(<龍宮赴宴錄>, 碧瀾
 神의 시, 앞의 책).

珍味充喉潤 恩波浹骨融 온갖 진미 배부르고 깊은 은혜 뼈에 스며
 還如殮沆瀣 宛似到瀛蓬 신선 기운 마신 듯 봉래산에 구경 온 듯
 歡罷應相別 風流一夢中 즐거운 뒤 이별이라 풍류도 꿈 같구나

천마산에 있는 용궁의 장엄한 풍광을 드러내는 데에서 시작하여 용왕이 신령스러운 능력을 바탕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 상서로운 기운 가득한 태평성대의 기상이 하늘과도 교통하고 있는 것을 칭송하는 것으로 도입부를 장식하고 있다. 이어서 윤필연 잔치를 소개하며 위의(威儀)의 성대함과 그곳에 모인 용궁 사람들의 화려하고 축복받은 삶을 두루 열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생은 용궁에서의 경험이 신선의 기운을 마시고 봉래산에 구경을 온 듯이 감격스러웠다고 하며, 용궁 사람들과 이별한 후 그 화려했던 풍류가 한갓 꿈과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으로 시를 끝내고 있다.

용궁 사람들이 윤필연의 흥겨움 속에서 자신들이 이루고 도달했던 업적의 허구를 자각하며 비애를 느끼고 있었던 것과 달리 한생의 시에는 어디에도 삶에 대한 애조의 정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용궁 사람들이 이룩한 태평성대의 업적과 그 화려하고 고귀한 삶에 대한 칭송과 동경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돌아보니 용궁에서의 경험이 신선의 기운을 마신 듯이 감격스러웠다고 하며, 이별 후 용궁에서의 풍류가 꿈과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을 아쉬워하는 것으로 시를 끝내고 있는 까닭이 이 때문이다.

삶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서 용궁 사람들과 한생이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용궁부연록>이 윤필연이 끝나는 부분에서 종결되지 않았던 이유이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서 작품이 종결되면 한생은 꿈에서 깬 뒤 용궁에서의 화려했던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고 동경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용궁 사람들이 느꼈던 비애의 정서는 작품에서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림으로서 작품이 형식논리의 파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용궁 사람들

과 한생이 보여주고 있는 삶에 대한 인식의 거리를 줄일 필요가 있었고, 이것은 윤필연 후 한생이 용궁의 기물을 두루 구경하는 과정에서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¹⁹⁾

흥미로운 것은 태평성대의 세상을 제시한 뒤에 그 허상을 파헤쳐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감추어졌던 용궁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는가 하면, 삶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서 용궁 사람들과 한생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게 하여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변화를 유발시키는 서사적 전개와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윤필연에서 토로된 인물들의 시(詩)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품에서 삽입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과도했던 것도 시(詩)를 단지 정서를 토로하는 수단이 아니라 서사적 전개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사적 전개의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시를 통해 드러나도록 했다는 것은 서사기법의 측면에서도 특이한 사례로서, 이것은 우리의 서사문학사에서 이루어졌던 또 다른 성취로 기록될 만하다.

IV. 용궁 구경과 삶에 대한 인식의 전환

윤필연이 끝난 뒤 한생은 용왕에게 부탁하여 용궁을 구경하게 된다. 한생이 처음 도착한 곳은 조원루(朝元樓)라 부르는 곳이었다. 전체가 파려(玻璃)로 만들어져 구슬과 옥으로 장식되어 있는 십 층 높이의 누각이었다. 한생이 맨 위층까지 오르려 하자 안내하던 사자가 “(그곳은) 임금께서 신력(神力)으로 오르실 뿐이고 우리들도 다 구경하지 못했다”고²⁰⁾

19) 물론 윤필연의 부분에서 작품이 종결되지 않은 것은 작품의 주제를 정하는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윤필연 부분에서 종결될 경우, 한생은 화려했던 꿈 속에서의 경험을 회상하며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반발하는 것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작품의 의미를 이렇게 정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 작가의 의도였기 때문에 윤필연 이후의 사건을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

만류하여, 한생은 칠 층까지 올라갔다가는 다시 내려와야 했다.

10층 높이의 누각에서 신하들에게는 7층까지만 개방이 허용되어 있고 나머지는 임금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생은 만물을 운택하게 하는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 임금이 신하와 부부처럼 사랑과 신뢰로 묶여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신하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원루에서 한생은 신령한 능력으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용왕이 사실은 신하들이 알 수 없는 자신만의 세계를 고 집함으로써 신하들과 소통과 신뢰에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생이 도착한 다음 행선지는 능허각(凌虛閣)이었다. 이곳은 용왕이 하늘에 조회할 때 의장(儀仗)을 정돈하고 의관을 치장하는 곳이었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한생은 그 가운데 북이 있는 것을 보고 쳐보려 했다. 그러자 사자가 나서서 이것은 뇌공(雷公)의 북이라서 한 번 치면 온갖 물건들이 진동하게 되니 치지 말라고 했다. 또 그 옆에 풀무와 같은 것이 있어 흔들어 보려 하니 바람을 일게 하는 풀무이니 만지지 말라고 하고, 물 향아리가 있어서 물을 뿌려 보려 하니 또한 세상이 홍수로 덮이게 된다 하며 만류했다. 능허각의 물건들을 시험 삼아 가동시켜 보려 했던 한생의 모든 시도가 차단되고 있는 것이다.

뇌공의 북이며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 그리고 비를 내리게 하는 물 향아리 등은 세상을 다스려 질서를 세우게 하는 도구들이다. 이른바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권력기구와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생이 북이며 풀무 등을 시험 삼아 가동할 기회마저 부여받지 못했다는 것은 용궁에서 국가의 권력을 사용함에 있어 신하들이 아

20) 生欲盡登 使者曰 神王以神力自登 僕等亦不能盡覽矣 生登七層而下(<龍宮赴宴錄>, 앞의 책).

무런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 없이 한생은 우뢰를 맡은 뇌공(雷公), 번개를 맡은 전모(電母), 바람을 맡은 풍백(風伯) 그리고 비를 맡은 우사(雨師)를 만나보려 했다. 그러나 사자는 이들이 깊숙한 곳에 갇혀 있다가 용왕에 의해 소집되어 질 뿐이라고 대답했다.²¹⁾ 뇌공과 전모 등은 국가의 권력을 책임지고 있는 각 기관의 수장(首長)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하게 차단된 채 오직 용왕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신하들이 국가권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아무런 권한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권력이 오직 임금에게만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용왕의 초청을 받아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았던 한생은 용궁이 신령스런 임금에 의해 다스려지며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당위적인 질서가 실현된 공간, 그로 인해 사람들의 모든 소외와 불만 그리고 갈등과 다툼이 사라져 만물이 윤택하게 된 태평성대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었다. 가회각의 상량문과 윤필연의 장편시에서 용왕의 신령한 덕을 칭송하고, 용궁이 평화와 안녕 속에 상서로운 기운으로 덮여 있다고 노래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래서 한생은 용궁 사람들이 도처에서 토로하고 있었던 비애와 애상의 정조를 감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화려하고 축복받은 삶에 길이 동참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원루와 능허각을 둘러보며 한생은 용궁의 국가 권력이 용왕에게 독점되어 있고 신하들은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임금과 신하가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 한생은 지금까지의 자기 판단이 너무 성급했었음을 깨닫고, 용궁 사람들이 느꼈던 비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다. 용궁 사람들이 이룩했다고 믿었던 태평성대의 실체를

21) 雷公電母風伯雨師何在 曰天帝囚於幽處 使不得遊 王出則斯集矣(<龍宮赴宴錄>, 앞의 책)

재조명해 보며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다.

곽개사는 자기를 희생하며 임금과 백성을 위해 온 힘을 다 했으나 사람들에게 비웃음만 받았다고 했다. 자기를 희생하여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려 했음에도 임금으로부터 희생에 값할 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현선생은 세상의 이치에 통달했어도 곤약에 빠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탁월한 재능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많았다고 한탄하고 있었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태평성대의 조정에서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안타까워하며,²²⁾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없었던 한계적 상황, 다시 말해서 임금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던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곽개사와 현선생이 부딪혀야 했던 문제는 결국 임금과의 신뢰관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데에서 생긴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곽개사와 현선생은 모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임금과 백성을 위해 일했던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탁월한 능력과 희생적 보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임금의 전적인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하고 말았고, 그로 인해 소외와 갈등 속에서 깊은 비애를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뛰어난 인재로서도 자기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태평성대의 시기를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때를 만났다 하더라도 자기를 알아줄 수 있는 임금을 만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²³⁾

윤필연에서 지은 시의 내용으로 보면 용왕은 곽개사에게 신령스러운 임금으로, 현선생에게는 천 년만에 만날 수 있는 성군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강하의 군장들에게는 위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 보는 안목도 밝은 임금으로²⁴⁾ 평가되고 있었다. 신하들뿐만 아니라 밖의 사람

22) 앞에서 거론했던 현선생의 시를 참고할 것.

23) 人才亦然 生盛治之世 居揖讓之朝 然後可以自盡其謀猷 人謂之俊彥 而得伸其素負之志矣 且天不格才 世不乏人 不適其時 不可以遂出 雖遇其時 亦難以自衛 (『梅月堂集』 卷二十, 人才說, 앞의 책).

들로부터도 신령스러운 임금으로 칭송받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용왕은 신령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신하들과 교감을 나누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자신의 권력을 나누어 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신하를 찾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광개사와 현선생이 대단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지만 용왕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것을 믿고 맡기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인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용왕이 윤필연의 즐거움 속에서 번뇌를 느꼈던 것은 모든 것을 믿고 맡겨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신하를 만나지 못한 것을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용왕의 신령스러움에 경도되고 태평성대의 분위기 속에 묻혀 있을 때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제 한생은 자신이 보았던 태평성대의 세상이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²⁴⁾ 그러나 용왕과 같은 신령한 임금이 보위에 있고, 광개사나 현선생 같이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희생적으로 임금을 보필하는 신하가 조정에 있음에도 태평성대의 세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한생에게 충격적 사실이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최고의 신하와 임금의 조합으로도 태평성대의 세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소외와 불만이 사라지고 만물이 윤택하게 되는 태평성대를 이룬다는 것이 현실세계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이상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태평성대의 세상이라는 것이 결국 이상으로만 존재하는 세계일 뿐 이를 수 없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결과는 성군을 만나 태평성대의 질

24) 諸人曰 神王威重 鑑人惟明 子必人間文章鉅公(<龍宮赴宴錄>, 앞의 책).

25) 이런 점에서 필자는 용궁을 조화의 이상이 실현된 이상세계로 보는 아래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경일남, 『<용궁부연록>의 우의성 재고』, 『고소설연구논총』, 경일문화사, 1994, 259-266쪽.

오대혁, 『금오신화와 한국소설의 기원』, 역락, 2007. 8, 206-210쪽.

서에 동참하려 했던²⁶⁾ 한생의 꿈도 역시 부질없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한생에게 평생의 신념과 꿈이 무너지는 깊은 절망이고 슬픔일 수 있었다. 그런데 한생은 깊은 절망과 비애를 자기를 파괴하는 허무의 감정으로 이어가지 않는다. 자기 파괴적인 허무는 삶의 전망을 상실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지만, 한생의 절망과 비애는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삶의 진실을 발견하는 인식의 전환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태평성대의 세상이 이상으로만 존재할 수 있을 뿐 실제로는 이를 수 없는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한생은 이제 태평성대의 질서를 이루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정신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당위적 질서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겪어야 했던 깊은 절망과 비애로부터도 벗어나는 정신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한생이 세속적인 가치며 욕망이 부질없음을 깨닫는 또 다른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게 한다.

다음의 인용문은 한생이 조원루와 능허각을 돌아보며 용궁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었던 태평성대의 허상을 파악한 뒤 도달했던 사고의 종착지가 어디에 이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또 긴 행랑이 수리(數里)나 연해 뻗어 있는데 문은 용의 형상을 새긴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한생이 물어보았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사자가 말했다.

“여기는 용왕께서 칠보(七寶)를 간직하여 두신 곳입니다.”

한생은 한 시간 남짓 둘러보았으나 다 볼 수가 없었다. 한생이 말했다.

“그만 돌아가고자 합니다.”

사자가 말했다.

26) 한생이 윤필연에서 지었던 장편시 20운에서 용궁 사람들이 이룩했던 태평성대의 질서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별하게 되는 것을 아쉬워했던 데에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²⁷⁾

조원루와 능허각에 이어 도달한 곳은 용왕이 온갖 보물을 간직해 놓은 보물창고였다. 용왕의 보물창고이고 더욱이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을 정도로 용궁에서 소중하게 관리되는 곳이었으므로 여기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감탄을 자아내게 할 만한 보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한생은 대단한 보물들을 보고도 한 마디의 감탄조차 하지 않고 말없이 한 시간 정도를 빙 둘러보고는 그만 돌아가겠다고 할 따름이었다. 조원루와 능허각에서 대단한 호기심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이것은 한생이 용왕의 보물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드러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 시간 정도가 지나서는 더 이상 구경할 흥미마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용왕이 심혈을 기울여 모으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보물을 보고도 아무런 흥미도 드러내지 않는 한생의 무관심은 그가 더 이상 세속적인 것의 가치에 이끌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속적인 가치의 부질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운필연에서 용궁 사람들의 화려하고 고귀한 삶과 그들이 이루었던 태평성대의 업적을 동경하던 한생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조원루와 능허각에서 있었던 인식의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V. 각몽(覺夢)과 부지소종(不知所終)의 의미

용왕의 보물창고를 구경하던 한생은 그만 돌아가기를 청하여 집으로

27) 又有長廊 連亘數里 戶牖鎖以金龍之鑰 生問此何處 使者曰 此神王七寶之藏也 周覽許時 不能遍見 生曰 欲還 使者唯<龍宮赴宴錄>, 앞의 책).

돌아오며 꿈에서 깨어난다. 밖에 나와 보니 동방이 밝아오며 시간은 오경(五更)을 지나고 있었다. 용궁에서의 모든 체험이 꿈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꿈에서 깨어나는 각몽(覺夢)의 사건은 그렇게 생생했던 용궁에서의 체험이 한 마당의 허망한 꿈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 된다. 이것은 한생에게 깊은 허무의 시간으로 다가오게 된다. 용궁에서의 모든 체험과 체험을 통해 도달했던 삶에 대한 인식의 전환마저 모두 허망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생은 급히 품속을 뒤져 용왕과 이별할 때 받았던 구슬과 빙초(氷綯)를 찾아본다. 용궁체험을 부질없는 한 바탕의 꿈으로 돌리고 싶지 않았던 까닭이다. 다행히 품속에는 구슬과 빙초가 있었다. 한생은 이 물건들을 보배로 삼아 간직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도 않았다.²⁸⁾ 꿈에서 깨어난 뒤 품속에 남아있던 구슬과 빙초는 한생에게 용궁 체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물건이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며 명예가 부질없는 것이라는 깨달음에서 오는 정신의 자유가 불우한 처지를 합리화하고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억지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터득한 삶의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생은 더 이상 세상의 명예와 이익에 뜻을 두지 않고 명산(名山)에 들어갔는데 그가 어디에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한생이 꿈에서 깨어나 세상을 등지고 명산에 들어간 것은 지금까지 자신을 얽어매고 있었던 세속적인 가치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아가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한생이 지배질서에서 소외되었던 데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에서도 벗어나 조용히 생 전체의 의미를 관조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8) 急探其懷而視之 則珠綯在焉 生藏之巾箱 以爲至寶 不肯示人(<龍宮赴宴錄>, 앞의 책).

이런 점에서 용왕이 지었던 수룡음(水龍吟)의 한 대목은 세속적 번뇌를 벗어버린 사람이 도달했던 자유로운 정신세계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風流若夢 歡娛又生煩惱 西嶺綵嵐初散	풍류도 꿈결같아 즐거움이 또 번뇌를 날네 서산에 끼인 채색 남기(嵐氣) 이제 막 사라지고
喜東峰水盤凝灑 舉杯爲問青天明月 幾看醜好 酒滿金罍人頽玉岵	동산에 둥근 달이 기쁘게도 찾아오네 술잔 높이 들어 저 달에게 물어보자 인간의 온갖 모습 몇 번이나 보아왔소 금 술잔에 술을 두고 옥같이 좋은 풍채 비스듬히 취해 있네
誰人推倒爲佳賓 脫盡十載雲泥壹鬱 快登青天	누가 넘어뜨렸는가 아름다운 사람을 십 년 동안 막혀 있던 근심에서 벗어나 유쾌하게 푸른 하늘 올라보세

풍류의 즐거움 속에서 번뇌를 느끼고 있던 용왕은 서산에 끼었던 저녁 안개가 사라지고 동산에 둥근 달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기쁨을 느낀다. 달은 긴 시간 동안 하늘에서 인간세상의 온갖 영욕을 두루 내려다보며 세속적인 가치와 욕망이 부질없음을 깨달은 달관의 경지를 터득한 존재이다. 용왕은 달과의 교감을 통해 세속적인 삶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데에서 생기는 번뇌에서 벗어나 정신의 자유를 느끼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다.

용왕은 또한 자신을 찾아와 술에 취해 비스듬히 누워있는 벗에게서 깊은 동류의식을 느낀다. 술에 취해 비스듬히 누워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방어기제를 해제한 상태의 평온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용왕 앞에서도 이런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세속적 가치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 온전한 정신적 자유를 누리게 될 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인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어서 용왕은 비로소 긴 시간 동안 자신

을 엮어매고 있던 근심에서 벗어나 유쾌하게 푸른 하늘로 오르는 듯한 정신의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다.

용왕은 태평성대의 세상을 구현함으로써 위대한 세속적 업적과 성취를 이루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달리 용왕은 가장 측근의 신하들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없었으므로, 만물을 운택하게 하는 태평성대의 세상을 만들어 보려 했던 자신의 이상이 이를 수 없는 꿈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절망과 비애에 잠겨 있던 인물이었다. 그런 용왕이 도달한 마지막 결론은 모든 세속적 욕망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자연을 벗 삼아 정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었다. 인간의 세속적 욕망은 결국 번뇌를 불러 모을 뿐이었고, 자연과 벗함으로써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용왕은 한생에 앞서 세속적인 가치와 욕망의 덧없음을 깨달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정신세계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또한 한생이 최종적으로 도달했던 사고, 다시 말해서 세속적 가치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하며 자유인으로 살아가려 했던 판단이 객관적으로도 타당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용왕을 통해 입증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²⁹⁾

VI. 맺음말

<용궁부연록>은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 가운데 마지막 작품이다. 이런 점에서 <용궁부연록>의 의미를 찾아보는 일은 『금오신화』를 통해 드러내려 했던 김시습의 생각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수렴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9) 이런 점에서 <용궁부연록>이 삶에 대한 전망을 완전히 상실한 작품이라거나, 전망의 상실로 인해 파생되는 고독과 우수로 삶에 대한 염세(厭世)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보는 견해(박희병, 『금오신화의 소설미학』,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223-225쪽)에 동조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윤필연의 시에 나타난 애조의 정서에 주목하여 애조의 정서가 갖는 의미를 <용궁부연록>의 서사적 전개과정과 연결시켜 찾아 보려 했다. 그 결과 <용궁부연록>은 능력은 있으나 쓰이지 못해 지배질서에서 소외되었던 한생이 용궁에서의 체험을 통해 세속적인 가치며 욕망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자연과 벗하여 살아감으로써 정신적 자유를 확보하려 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세조의 정변 이후 깊은 절망과 비애에 사로잡혀 있던 김시습이 세속적 가치며 욕망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자연과 벗하여 살아감으로써 정신의 자유를 확보하려 했던 심정을 작품화 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시습은 <용궁부연록>을 통해 절망과 비애에 싸여 있던 감정의 소용돌이를 정리하고 자신의 생애와 인간들의 삶 전체를 관조하며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용궁부연록>의 이러한 의미는 『금오신화』의 체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금오신화』는 <만복사저포기>에서부터 시작된 치열한 내면적 갈등의 소용돌이가 <용궁부연록>에 이르러 종식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김시습이 <만복사저포기>부터 <용궁부연록>에 이르는 다섯 편을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 구성해서 세조의 정변 이후 세상에서 이탈해 나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마음의 평정을 되찾기까지의 삶 모두를 총체적으로 드러내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5세기에 나타난 『금오신화』가 근대소설에서 추구하고 있는 삶의 총체성을 작품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삶에 대해 치열하게 성찰하고 온 몸을 던져 불의와 맞서려 했던 삶의 과정 모두를 담아내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금오신화』 소재 다섯 편의 작품이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 다루질 때에 그 온전한 의미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³⁰⁾

30) 여기에 대해서는 안창수, 『금오신화의 의미구조와 작가의식』, 『영남어문학』 26

또한 『금오신화』는 <용궁부연록>이 끝난 뒤에 “書甲集後”라는 제목 아래 김시습의 자작시(自作詩) 두 수와 후기(後記)가 실려 있다. <용궁부연록> 이후 을집(乙集)으로 시작되는 또 다른 작품집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³¹⁾ 『전등신화(剪燈新話)』와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해 보더라도 갑집(甲集) 이후에 또 다른 작품집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보는 것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갑집 이후의 작품집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유실된 것일까,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만복사저포기>에서 시작된 내면적 갈등의 소용돌이가 <용궁부연록>에 이르러 종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김시습은 <용궁부연록> 이후 새로운 작품을 쓸 동기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용궁부연록> 뒤에 실려 있는 자작시 두 수는 이런 추정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자작시에서 김시습은 세속적 가치에 대한 모든 관심을 끊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은 상태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관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용궁부연록>을 쓴 이후 찾아 온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다시 세상과 치열하게 맞서야 하는 동기를 부여받기가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갑집 이후의 작품집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존재한다면 그것은 소설이 아닌 다른 양식의 글로 채워졌으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집, 영남어문학회, 1994.12.31, 103-126쪽에서 다룬 바 있다.

31)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했음.

최용철, 『<금오신화> 조선간본의 발굴과 그 의의』, 『중국소설연구회보』 39호, 한국중국소설학회, 1999.9, 37-47쪽.

참고문헌

- 경일남, <용궁부연록>의 우의성 재고, 『고소설연구논총』, 경일문화사, 1994, 259-266쪽.
- 박희병, <금오신화>의 소설미학,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223-225쪽.
- 안창수, <금오신화>의 의미구조와 작가의식, 『영남어문학』 26집, 영남어문학회, 1994.12, 103-126쪽.
- 오대혁, 『금오신화와 한국소설의 기원』, 역락, 2007. 8, 206-210쪽.
- 윤채근, 『소설적 주체, 그 탄생과 전변』, 월인, 1999, 206-220쪽.
- 이가원, 금오신화 해제, 『금오신화』, 통문관, 1959, 27-28쪽.
- 이혜순, 금오신화,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24-26쪽.
- 정주동, 『매월당김시습연구』, 신아사, 1965, 730-733쪽.
- 최용철, <금오신화> 조선간본의 발굴과 그 의의, 『중국소설연구회보』 39호, 한국중국소설학회, 1999.9, 37-47쪽.

<Abstract>

The Internal Aspect and Meaning in *Yonggung Buyeonrok*(龍宮赴宴錄)

Ahn, Chang-Soo

Yonggung Buyeonrok(龍宮赴宴錄) is the last one among five works that consist of *Kumo Shinhua*(金鰲新話). In this respect,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Yonggung Buyeonrok*(龍宮赴宴錄), for we can see what is the ultimate intention of Kim Siseup(金時習), who was trying to express through *Kumo Shinhua*.

In this paper, I tried to show the characters' sorrowful tone in *Yonggung Buyeonrok*. In addition, I tried to find out what is the meaning of the emotion of sorrowful tone in relation to the narrative process. As a result, I came to know that *Yonggung Buyeonrok* is the work which the protagonist Han Saeng(韓生), who was alienated from the Royal court, was invited to the Sea King's Palace, and realised that the secular affairs and desires in this world were of no value.

In conclusion, this shows that Kim Siseup, who was in the state of despair and sorrow after "Gyeyu Geongran(癸酉靖亂)", wanted to seek the freedom of mind through making a living with nature, and *Yonggung Buyeonrok* was written for revealing his heart like this.

Key Words : the emotion of sorrowful tone, the narrative process, the freedom of mind, the Royal court

■ 논문접수 : 2009년 11월 10일

■ 심사완료 : 2009년 12월 5일

■ 게재확정 : 2009년 12월 10일